싱가폴 불교대학, 390억 건물 신축

콩멩산 포칵시 사원 위치
명상홀·농구코트 등 6층 규모

졸업자 40명서 100명으로 증원
"불교교육 허브역할 할 것"



싱가폴 불교대학 신축 건물은 390억 규모 6층 건물로, 농구코트, 운동장, 명상홀, 사무실, 교실을 비롯해 1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포함하고 있다.
사진출처=스트레이트타임즈닷컴

싱가폴 불교대학이 390억 원 규모의 빌딩을 완공, 그 위용을 드러냈다. 불교대학은 지역의 스님들과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싱가폴 불교대학은 콩멩산 포칵시 사원의 식광승 스님이 설립한 학교로, 스님들을 위한 특별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유일한 곳이다.

새로 지어진 건물은 싱가폴 비샨길 브라이트 힐에 위치한 콩멩산 포칵시 사원(Kong Meng San Phor Kark See Temple)에 자리했다. 2년여 시간에 걸쳐 완공된 건물은 6층으로 농구코트, 운동장, 명상홀, 사무실, 교실을 비롯해 1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포함한다.

또한 대학은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설립 첫해 40명으로 배출하던 졸업자 수를 매해 마다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싱가폴 불교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2년에 한번 50명의 학생들이 수료하고 있다. 70명의 학부생들과 11명의 대학원생이 이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신축 건물의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싱가폴 불교대학은 지난 9월 10일 리센룽 싱가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인 개원 행사를 열었다.

리센룽 총리는 불교대학 빌딩 완공을 축하하며 "불교는 싱가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교 가운데 하나로,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생필품을 비롯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각종 의료 봉사활동을 하며 자비행을 펼쳤다"며 "이번 불교대학의 완공이 싱가폴 불교 지도자들의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 총리는 "이곳 비샨길 지역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식광승 스님의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며 "광승 스님은 다문화사회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많은 헌신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웃종교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싱가폴에는 다양한 종교가 분포하고 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과 종교적 의식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인종과 종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싱가폴 불교대학 부총장인 촨승 스님은 불교대학이 중국어와 영어로 운영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들은 스리랑카의 켈라니아 대학, 태국 최대 불교대학교인 마하출라롱콘라자위디얄라야 대학교와 제휴를 맺고 있어 이웃 불교국가 스님들 유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촨승 스님은 "우리 불교대학은 교육의 허브라 할 수 있는 싱가폴에 자리하고 있으며, 스리랑카 · 캄보디아 · 베트남과 같은 불교국가의 스님들에게 점점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학은 스님들에게 장학금 제공 뿐 아니라 교과서와 숙식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불교기관들과 교류를 통해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식광승 스님은 "불교대학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사찰의 수도원 행정업무를 비롯해 다른 대학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이라며 "한정된 싱가폴 불교의 자원으로 불교 교육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소녀 및 여성 인신매매, 그만두어라"

여성인권 선양 '쿵푸' 비구니 스님들 자전거 횡단



불교국가 비구니 스님들이 네팔과 인도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 자전거로 4000km를 횡단하고 있어 화제다.
사진출처=아이비타임즈

여성인권 선양을 위한 자전거 횡단으로 유명한 비구니 스님들이 이번엔 네팔 및 인도의 인신매매 행태를 알리기 위해 4000km 횡단에 나서 화제다.

영국 언론 '아이비타임즈'는 "티베트 · 네팔 · 부탄 · 인도의 비구니 스님들이 히말라야를 가로질러 인도와 카트만두를 자전거로 횡단한다. 이는 인도와 네팔서 벌어진 여성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보도했다.

동남아는 세계에서 인신매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중 하나다. 2015년 일어난 2번의 지진으로 4만 명의 어린이가 부모를 잃었으며,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어린 소녀들은 인신매매 집단에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횡단에 참가하고 있는 지그메콘촉랴모 스님은 "지난해 네팔 지진 발생 후, 네팔의 많은 소녀들이 가난한 집의 생계를 위해 팔려나가고 있단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는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행태를 변화시키고 싶었으며, 여성들도 남성 못지않은 힘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전거 횡단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횡단은 '쿵푸(Kung fu)'로 유명한 티베트 불교 드룩파(drukpa) 종단 비구니 스님들이 '여성인권 선양'을 주창하며 나선 4번째 자전거 횡단이다. 비구니 스님들은 네팔 카트만두서 출발해 인도 고라크푸르, 파트나, 라즈기르 지역을 거쳐 인도 뉴델리서 첫번째 일주를 마친 바 있다.

비구니 스님들이 용기를 내어 횡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드룩파 수장 걀왕 드룩파(Gyalwang Drukpa)의 격려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드룩파 종단과 협업을 펼치고 있는 캐리리 '리브투러브(Live to Love)' 자선단체장은 "전통적으로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들과 매우 다른 대접을 받아왔다. 그들은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해야 했으며 운동도 할 수 없었다"며 "걀왕 드룩파 스님은 이런 관습을 바꾸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그는 비구니 스님들의 리더십 함양과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쿵푸를 가르쳤다"고 말했다.

걀왕 드룩파 스님은 "동남아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우리는 여성존중 및 동등한 인권가치 인식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인도 불교영화 "진짜 스님 출연" 주목

닥터 비주 감독, 인도 · 티베트 등서 촬영 돌입



닥터 비주 감독. 사진출처=saddahaq

스님들이 출연하고 고대 인도어로 말하는 불교영화가 제작될 예정이다.

인도 언론 'Times of India(TOI)'의 9월 16일자(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영화감독 닥터 비주(Bijukumar Damodaran)는 불교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Sound of Silence)' 제작에 돌입한다. 닥터 비주 감독은 그간 길거리 청소부 이야기를 다룬 '네임즈 언노운(2014)', 강력살충제 피해를 다룬 '버즈위드 라지 윙즈(2015)' 등 영화를 제작해 영화의 정형화된 양식을 탈피했단 평을 받았다.

닥터 비주는 "한 소년이 승려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심도있게 그려낼 예정"이라며, 인도 북부 히마찰프라데시 및 티베트 등서 촬영할 것이라 밝혔다. 영화 촬영팀은 이미 히마찰프라데시서 촬영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이번 영화는 감독의 모국어인 말라야람(인도 최남단 케랄라 지방어)으로 제작되지 않는 최초의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대사는 힌두어, 팔리어, 티베트어로 이뤄진다. 또한 닥터 비주는 현지 스님들을 출연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했다.

닥터 비주는 "나의 이전 작품서 열연한 마스터 고바단이 이번 영화서도 주인공인 승려 역할을 맡는다"며 "또한 히마찰과 뭄바이 지역 배우들을 비롯해 승려들을 영화에 출연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주 감독은 마오주의(마오쩌둥주의)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웬더 우즈 블룸(2016)' 개봉을 앞두고 있다. 박아름 기자

비아시아 지역 최초 사원 90년 맞아

영국 '런던불교사원' 9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비아시아 지역 최초 사원 런던불교사원은 90주년을 기념 전시회를 개최했다.
사진출처=더 선데이 타임즈

비아시아 지역서 최초로 세워진 '런던 불교 사원'이 90년 역사를 맞아 전시회를 열었다.

영국 주간지 '더 선데이 타임즈'는 9월 17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출신 종교부흥 운동가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가 세운 런던불교사원(London Buddhist Vihara)이 90년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회를 개최했다"며 "7일 간 진행된 이 전시회는 각계각층의 관심을 끌었다. 영국불교회장 데스몬드 비돌프 박사를 비롯해 이웃종교인들도 많이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런던불교사원은 비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최초 불교 사원으로, 불교를 서방에 전파해 왔다. 현대에 들어 '영국 불교 전승의 중심점'으로 널리 알려지며, 현재 영국 태생 스리랑카계를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불교를 가르치고 있다.

사원의 현 주지 보고다 시라위말라 테라 스님은 "설립자 다르마팔라는 불교를 전혀 모르던 서방세계에 고귀한 가르침을 전달했다"며 "7일간 전시되는 사진들이 위대한 업적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는 1891년 인도서 파괴된 사리탑과 조각품을 목격한 후 "인도서 불법(佛法)의 횃불을 다시 점화해 성지를 회복했다"고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했다. 이후 힌두교에 의해 박탈당한 불교 사원 수호활동 및 해외 포교를 이어가던 중, 1925년 영국서 잡지를 발행하고 이듬해 '런던 불교 사원'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세계 최초 불교뮤지컬, 오프브로드웨이로

'보리수나무 아래', 내년 상반기 영어버전 세계 초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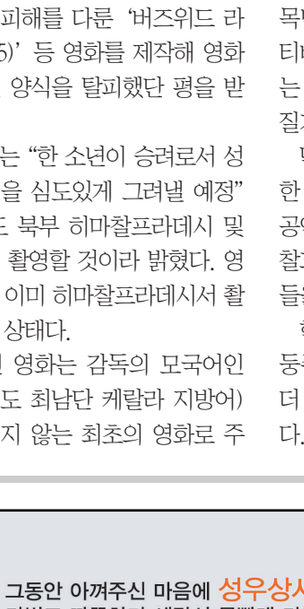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를 대중화한 세계 최초 불교 뮤지컬 '보리수나무 아래(Under the Bodhi Tree)'가 뉴욕 오프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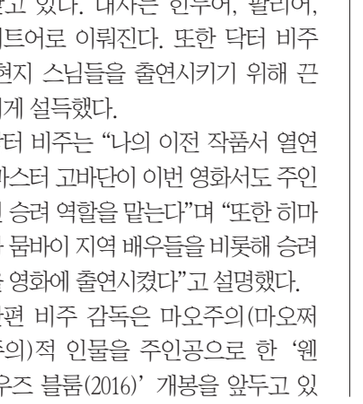
'미주 한국일보' 9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보리수나무 아래'는 내년 여름 한국서 첫 선을 보인 후, 상반기 오프브로드웨이서 영어버전 세계 초연을 계획한다. 불교 예술단 '무소의뿔' 대표 이진구 씨가 작곡가 겸 프로듀서를 맡았으며, 그의 부인이자 작가 겸 작사가인 송연경 씨가 한국어 가사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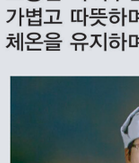
특히 이번 뮤지컬은 배우부터 스태프까지 모든 출연진을 다인종 다국적으로 구성했을 뿐 아니라, 록 · 펑키 · 재즈 · 한국 전통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고루 섞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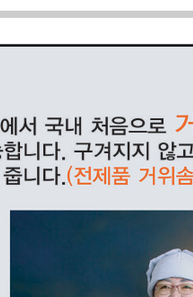
현재 공연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10월 4일 오후 6시 후원의 밤 행사(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파인플라자 4층 연회장) △10월 22일 오후 7시 시사회 및 워크샵(맨하탄 뉴욕대학원) 일정은 확정됐다. 추후 후원금 규모에 따라 공연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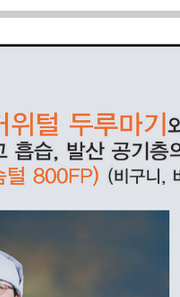
그동안 아껴주신 마음에 성우상사에서 국내 처음으로 거위털 두루마기와 동방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가볍고 따뜻하며 세탁시 물빨래 가능합니다. 구겨지지 않고 흡습, 발산 공기층의 형성으로 땀이 ;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증가시켜 줍니다.(전제품 거위솜털 800FP) (비구니, 비구스님 공용)


잔누비두루마기 88만원


반동방 68만원, 잔누비 73만원


땀이 차지 않습니다.
물수건으로 닦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람막이겸 비옷
바람막이 상의 18만원
바람막이 하의 11만원


사폭바지
굵은누비 50만원
잔누비 55만원


보살님용
3계절용
조끼 18만원
바지 38만원
색상선택 M/L/XL

불교 박람회 참여 업체
전국 방문
상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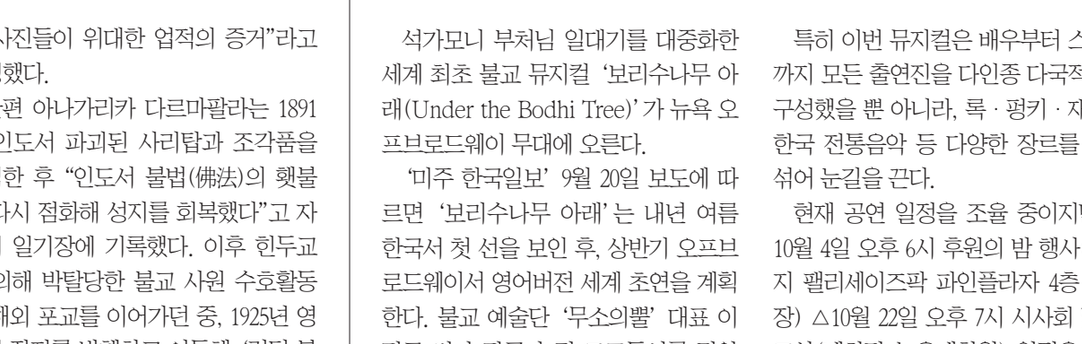
전제품 거위털
사이즈 M,L,XL,2X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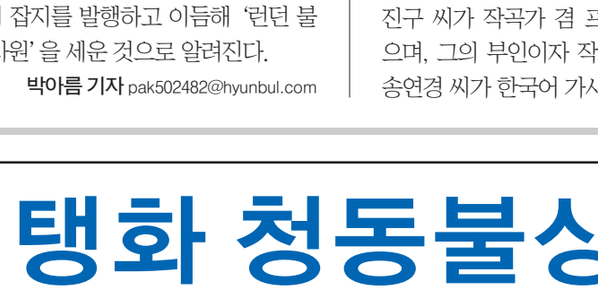
· 누비적삼 50만원
· 실내 저고리 23만원
· 속조끼 14만원
· 속바지 38만원
· 겉조끼 18만원
· 중량점퍼 35만원
· 복대 5만원
· 버선 8만원
· 공양앞치마 2만원
· 모자 9만 5천원
· 목도리 대 5만 5천원
· 목도리 중 2만 8천원
· 목워머 1만 6천원
· 휴대용 이불 M2 (105/148) 14만원
· 휴대용 싱글이불 겸 배낭 M3 (150/200) 28만원
· 사계절 이불 600g 55만원
420g 42만원
(이불 그램수 조절 가능)

성우상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19번지 로타리상가 B1층
대표번호 : 02-2679-2848
남성우 : 010-3707-7016

단추와 옷고름(선택) 맞춤도 가능하며 맞춤시 방문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 www.namsungwoo.co.kr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